

# I. 질적교화에서 양적교화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제안

김대선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1. 여는 글	7
2. 해방 후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분석	8
3. 해방 후 급성장하는 한국교회	9
4. 원불교 교화 성장의 조건	12
5. 원불교 교화정체와 침체요인	14
6. 원불교 교화성장의 방안(양적교화의 방향)	16
7. 닫는 글	18

## 1. 여는 글

최근 좌산종법사의 경륜이요, 교단적 과제인 원음방송 개국과 현인위성방송, 군종 추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중매체와 영상을 통한 대중교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왔다. 또한 군(軍) 교화의 화두인 군종법안이 통과되어 하위법인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국내외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점에 교화정체와 양적교화 성장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인식의 공유가 시급하다.

지난 1985년 인구조사에서 교도수는 10만여명이 부족하였고, 1995년에는 8만5천여명으로 발표되어 매우 당혹스러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 다가올 2005년 인구

\* 김대선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교구 성동교당에서 주임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조사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민족종교 D종단에 추월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에 더더욱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군종추진만 보더라도 현재 60만여명 중 실제 교도수는 5천여명이 안된다. 이러한 교도수로는 어떠한 사업에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과 대중교화의 새 틀이 없는 한 2005년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질적 교화의 성과는 교조정신과 교법구현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화역량이 부족하고 교단적 정책이 혼재하여 양적인 교화가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한국교회 성장요인을 제시하고 비교 연구하려 하였으나, 주관적인 판단과 동지들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교단의 양적성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해방 후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분석

먼저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최근 약간의 글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대략 세 가지 방법으로 한국교회 성장을 진단하여 기술하면,

첫째는 70년대 민중 신학의 등장으로 사회학이 신학뿐만 아니라 선교학 이론에 영향을 미쳐 한국교회 성장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경이적 성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였을 때, 이와는 좀 다른 사회적 분석을 시도하기 했다.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회학적 분석은 1970년대 해방신학, 민중 신학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에 다시 나타났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초기에는 한국교회가 근대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며, 해방 후 7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인권운동과 민주화투쟁에 기여함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어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즉 사회 참여가 교회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익부 빙익빈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종교에서 영적 보상과 위로를 찾았기 때문에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문화인류학적 해석이다. 한국의 샤머니즘적 문화 풍토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동질집단 원리와 복음에 대한 강한 수용성이 성장을 초래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물활론(Animism)과 샤머니즘의 문화권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선교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 방법의 교회 성장학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로 토착화 이론에 의한 성장의 해석이다. 즉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전도의 준비(preparatio evangelica)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타종교간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신학적 전제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것은 완성설(fullfilment)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팔머교수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성공을 토착화 이론에 두었다. 선교사들이 성경의 ‘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의식과 풍속은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물론 초기 선교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다. 특히 감리교의 신학자들은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가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감리교 신학자는 한국 교회의 성장의 이유는 한국의 재래종교를 배경으로 한 한국인의 심성이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회성장은 단순한 사회학적 이론이나 문화인류학적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영적, 신학적, 사회적 전도, 전략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교회성장은 단순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닌 영적, 문화적, 사회적, 신학적, 목회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것이다.

### 3. 해방 후 급성장하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천주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 되는 나라는 아시아에는 한국 외에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고난 속의 성장이다. 물론 성장 이면에는 경제성장이 거품성장이라고 자조하듯 한국교회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성장지향의 교회보다는 내적 성숙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강하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최근 대형사고나 범죄에 기독교 신자가 연루된 데 더욱 많은 자극을 받아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 반면에 한국교회의 성장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직 기독교가 다수의 종교가 아닌 우리사회에서 기독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수지만 경제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려는 신자기업인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한 통계는 신뢰성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해방 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완만한 성장과 급성장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물론 동란을 전후하여서는 통계가 없지만 해방 전에 한국교회의 통계는 1920년대는 약 20만 신도였고, 1925년에는 26만, 1934년에는 33만이었다. 그러던 것이 전쟁 이후 1956년에는 신자 통계가 77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6.25전쟁을 전후하여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60년대는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70년대 거의 3배에 가까운 급성장을 한다. 통계에 의하면 1969년 2,166,677명의 신자가 1980년에는 5,981,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문화공보부의 통계는 그보다 훨씬 많은 7,180,627명이다. 최근 2000년에는 기독교 자체에서는 1천만이 넘은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기는 한국교회가 양적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당시의 성장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로, 70년대는 모든 교회들이 확장을 위한 전도운동과 교회개척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또한 연합을 통한 대전도집회도 교회성장에 기여하였다. 일부 대교단 교회들은 교회와 신자증가의 목표를 설정하여 교단이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감리교, 성결교 등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둘째로,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교회성장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서울로의 인구집중화는 더욱 서울지역의 교회에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나 유교 등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종교보다는 개인 지향적이고, 사회의식이 강한 기독교를 선택하게 한다. 따라서 농촌은 기독교가 약한 반면 도시는 교회가 성장하였다. 그 결과 특히 서울은 인구의 20% 정도가 신자인 반면 부산과 대구 등은 10%미만이고 경남지역의 진주 등은 기독교 인구가 4·5%에 불과하고 강원도와 충청도도 동일한 수준이다.

셋째로, 70년대에 와서 한국교회는 목사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목회전략이나 교회성장 전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목회가 많이 개발되었다. 철야 기도회, 성경공부, 제자훈련, 구역제도의 강화, 평신도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자연히 평신도의 동원을 자극하여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70년대 한국교회는 군선교, 경찰선교, 병원선교, 학원선교, 산업선교 등 모든 분야에서 교회의 전도 영역을 확대하였다.

넷째로, 기독교 메시지의 현실 지향적으로의 축소화(down-to-earth)와 '성령운동'의 강화는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반면 이것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70년대는 특히 오순절교회가 급성장한 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의 현세적 가치, 즉 축복과 성공에 기독교적 가치를 많이 두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본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많은 강단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실의 축복과 성공으로 축소함으로 교회의 변증적 사명은 외면하고, 복음의 축소화 현상(down-to-earth)은 물론 소외된 자들을 고무하여 기독교 신앙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점에서 세계 제일의 교회가 당시에 한국에서 등장하였지만, 결코 즐거운 자랑만은 못되고 있다.

다섯째로, 70년대 말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 장로교회는 많은 분열을 하였고, 분열은 무인가 신학교를 부채질하여 많은 교역자를 양산하였다. 교역자의 양산은 교회개척을, 교회개척은 한시적이나 경쟁에 의하여서 신자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 개척도 90년대에 와서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끝으로, 70년 후반과 80년대 초기는 정치적으로 갈등과 혼란의 시대였다. 특히 원리주의자들이 활발하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이란의 회교혁명은 70년대 종교부흥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또한 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아 성숙이냐 성장이냐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회적 복합요인과 상승 작용하여 90년대 초기부터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서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부단한 간신과 자기변혁의 노력이 요구된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침체기로 보는데, 현재의 침체의 원인을 요약하면 외형적 성장에 치우쳤던 교회는 질적으로 미성숙을 드러내었고, 그 결과 사회적인 공신력을 상실하였다. 교회의 분열은 한때 경쟁을 통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결국은 교회

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으로 레저문화의 발전은 서구 교회처럼 교회성장을 둔화시킨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영적 성장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청년층 학생층 유년주일학교의 약화는 미래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외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부흥하는 타종교의 세력과 종교다원주의의 분위기는 서구의 퇴각과 더불어 기독교에 도전이 되는데, 한국도 최근 주 5일 근무제, 불교의 부흥은 교회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본다.

#### 4. 원불교 교회 성장의 조건

교회성장의 조건은 교당 기관 등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원불교 교회성장의 기본적인 조건은 교역자의 자세와 리더십, 출가재가교도의 신뢰와 믿음, 지도자의 양성, 조직의 활성화이다. 또한 성장의 의미는 양적성장, 질적성장, 교화적 성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전문 연구원들에 의해 원불교 교회성장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하여 성장점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제안하며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 1) 교회성장은 교회정책 등 과정을 중시되므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화의 성장은 하나의 과정에서 출발하듯 사건중심은 절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교화의 성장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며(장기, 연간, 월별, 주간, 일일계획이 중요하다) 시간과 프로그램, 인사문제, 자료 등의 관리가 요구되며 목표와 목적을 측정할 수 있고 일자를 정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정은 정지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체적이기보다는 유동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와 역동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문화적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화의 성장은 요술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인간의 수단과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도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해서도 절대 안되며, 교당교화의 역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역사는 그 시대의 거울이다. 따라서 교화는 일시적인 유행을 떠나 과정이 완성될때까지 지속 발전되어져야 성장할 수 있으며, 교무 단독의 교화는 생명력이 없으므로 열린 교정과 참여 교화가

이뤄져야 한다.

2) 교도의무는 양적교화를 지향하나 교화는 질적 성장으로 균형 발전되어야 한다.

원불교 교도가 되면 4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종 의무 중 입교연원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도가 되면 아홉명을 입교시켜야 할 의무가 있듯이, 아홉명이 한 사람씩 입교시키면 81명이 된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교도를 불리는 방법이다. 일종의 피라밋 원리이듯 힘 있는 피라밋이 되어야 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교화의 방법을 거시안적으로 제시하였듯이, 교단이 양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교화단 교화를 통하여 조직관리와 지도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교 배가운동이 법회출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질적 성장은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3) 교화력 증진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도력 향상이다.

교단이 바른 지도자들과 충분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단은 성장할 것이다. 교단의 교화력 신장도 교화자의 뜻이기 때문에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리더십 계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많은 지도인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교역자의 자세와 리더십은

- (1) 성장하는 교당의 지도자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장하는 교당은 성장하고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지도력 향상에 도전해야 한다.
- (2) 지도자는 교단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 (3) 지도자는 역사적 안목과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 (4)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알고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세계관이 투철해야 한다.

4) 교당 신설시 주차장 시설 확보는 교화의 지름길이다.

교단교화의 성장요인은 단위교당이 교도들에게 얼마만큼 베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교당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함도 교도에 대한 배려이다. 요즘 자동차는 생활 도구이자 수많은 사람이 자동차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주차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교회성장의 원인 가운데 교회가 고속도로에 가까

이 위치하고, 충분한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더라도 대형마트가 성공하는 이유는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충분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다. 교당도 이제는 교도들을 위하는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성교당이나 개척교당 역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당신설시 적정규모의 대지를 확보하면 성장은 물론 교화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원불교 4축 2재의 문화적 정착이다. 또한 중앙과 교구분권의 제도적 보완이다. 이는 별도의 연구가 있으므로 생략한다.

## 5. 원불교 교화정책와 침체요인

### 1) 교화의 주종인 사업위주교화가 아닌 교화위주사업이어야 한다.

어느 종교학자의 지적이 있었듯이, 이제는 교단이 문화 창조기에 들어섰다. 문화교화란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과 경륜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최근 교단에서는 30여년간 교당과 교도 불리기를 전개하여 교세신장을 최우선으로 교화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교세확장으로 인재육성과 교산 불리기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상대로 하여 지도력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그러한 결과 사업위주 교화는 물량적 실적주의로 빠져 기관, 교당은 크게 확장되었으나, 교세는 점차 침체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당시에 지도급 인사들이 이웃종교인 불교의 능인선원, 개신교의 순복음교회, 천주교 명동성당 같은 교화장인 교당을 신설,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몰입하였다면 오늘날 교단의 위상은 크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 2) 교화의 한계가 왜 이렇게 빨리 왔는가.

교단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취업이 전쟁이다. 한국에도 고학력 실업자들이 수십만명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명퇴가 3~40대까지 내려왔다.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십배의 자기계발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를 한다. 그러나 반면에 교단의 현실은 매우 답답하다. 교화의 장은 무궁하고 무한하지만, 소수만이 초월적 삶과 열정적으로 교화에 매진하고 있다. 대부

분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는 자리를 선호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역력하다고 한다. 혹은 현재 처한 일터에서 자리 보전 내지 일상성에 빠져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혹여 현장교화자와 기관교화자의 생존권 문제나 후생복지 등 차별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면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자. 자못 불평등한 인권침해가 개인에 있어서는 도그마에 빠지고, 교단은 딜레마에 처한다면 교회극복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 3) 출가·재가 인재관리의 허점은 없는가

한국사회에서 원불교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한국 4대종교로 급부상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 이해는 커녕 교리는 더욱 모르고 있다. 저소득층과 대학생, 중산층조차도 원불교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가 되고 출가하여 교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대사건이다. 그러므로 사회변화 중 독신을 선호하고 결혼한다 하여도 자녀가 한두명에 그쳐 점차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에 인재개발과 관리는 교단에서는 최대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감소는 교도증감에도 크게 작용되므로 인재육성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재가교도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자. 남북통일을 대비한 교역자의 배출은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교정원의 교화정책에 일관성이 단절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출가교역자의 갈등과 불신이 점차 팽배하여지고 있다. 교단의 언로가 막혀 있으면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원불교교헌 전문에서 ‘재가·출가 전 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공화제도(共和制度)란 공화정치의 제도로 공화정치는 주권이 한 사람의 의사에서가 아니고 합의체의 기관에서 나오는 정치를 공화정치, 즉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해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장이나 개개인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지도부와 교정원이 되어야 신명나는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또한 교당이 대부분 영세하여 주민의 욕구나 교도들의 자긍심을 외면하는 등 교당 환경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의 무계획적인 교당 건축양식으로는 이웃 종교와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하루속히 정형화된 교당건축과 대형주차장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교무와 교도간 갈등과 불신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일일 것

이다. 교당교무간 혹은 교도간 갈등과 불신은 교세신장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역교화와 대사회교화의 참여는 교정과 교리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대사회교화는 교무의 지도력에 좌우되듯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

21세기는 변화의 세기이다.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가 바뀌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들 스스로는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관과 도덕적 윤리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시대를 향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화운동의 이념을 교법에서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머물고 있다. 이제라도 교단의 교화 발자취를 정리하고 점검하여 올바른 시각으로 조망해보는 학문적 평가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자.

## 6. 원불교 교화성장의 방안 (양적교화의 방향)

교단은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요, 집단이기 때문에 교화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대사회 참여 없는 교화는 결실이 보장되지 않는다. 변화의 물결에 수동적 자세보다는 교화자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교화력이 증진된다. 또한 교단의 교화 인프라 구축이 교세신장의 최대 관점이다. 교단에서 추진하는 군종문제, 청소년 교화특위, 현인 위성방송추진 등이 교화 인프라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원불교의 위상이 보편화, 대중화되어지지 못한 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할 뜻이다. 아직도 민족종교와 불교 종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원불교 인식의 발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동안 전개되어진 교화내실화인 질적교화에서 양적교화로의 정책변환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교화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교단내 조직의 활성화가 더욱 급선무일 것이다.

### 1) 조직교화

원불교 중앙교도회 통합 발족하여 각 직능별 단체의 역할증진과 지역교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자. 교당도 교당규정에 의한 집행기구인 교화협의회를 두고 교화기획, 청소년, 총무, 재무, 봉공분과가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때 교당

교화도 성장할 것이다. 조직의 활성화와 정체성 극복이 과제다.

## 2) 미디어 홍보교화

미디어 영상 교화, 원음방송 교화(익산, 서울, 부산 3원방송 주 1회 60분~90분 교도 찾기 전개 생방송-이산 가족 찾기 방법이용) TV, 신문, 매스컴 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타를 많이 배출하자. 영화, 드라마에 원불교 소품소개, 스타들의 성공정신을 교리정신에서 홍보토록 하자.

## 3) 캠퍼스 교화

종립학교는 교화의 저수지이다. 대학, 전문대학, 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대량교화의 못자리판이다. 대학동아리 교화도 매우 중요하다.

## 4) 문화예술 교화

직능별 모임이나 소그룹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단체 지원이나 육성이 과제다. 나아가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교화도 시급하다.

## 5) 대사회활동 교화

NGO활동 및 활동가를 육성 지원하며 생명·평화·환경·인권·통일·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NGO조직과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6) 각종 위탁시설을 통한 교화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관 시설 등을 활용, 교화력을 증진시켜 대중교화의 자산이다.

## 7) 산업교화

보화당 한의원의 업그레이드로 한방병원으로 전환 등 산업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항구적인 산업구조로 변환하여 교단의 재정담당은 물론 효율적인 산업교화를 하자.

### **8) 인재육성 관리교화**

신 바람난 교화자가 많아야 조직이 살아나듯 현장교화(각자 처한 장소)의 풍토가 바꿔져야 한다. 한번 발굴된 소중한 인재는 교단이 책임져야 한다. 물건이나 소모품은 역할이 끝나면 용도폐기되나, 바람직한 인재관리는 조직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생존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9) 중앙총부는 중앙교구를 직할교구로 전환하여 대중교화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신앙 도량인 총부가 역동성이 부족하다. 성지순례 기능, 청법도량 기능,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퇴임하신 원로교무들에게 역할을 드리도록 하자. 현재의 각 교구 훈련도량에 순환, 주석하여 상주설법을 실시하여 교법을 대중화 하자. 주 5일 근무제가 교화의 활로라고 믿는다. 한편 교정원의 수도권 이전도 고려 할 부분이다.

### **10) 도시마다 거점교당 설립과 교당 통폐합을 서두르자.**

서울의 이웃종교 명동성당, 조계사, 능인선원, 부산의 삼광사 등은 도시교화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에서는 아직 대도시 시민들을 위한 영성도량 내지 휴식공간이 전무하다. 또한 교당교화의 활력화와 바람직한 인재관리를 위하여 교당의 통폐합도 검토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거점교당 설립과 교당 통폐합은 빠를수록 교단이 성장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7. 닫는 글**

소태산 대종사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라고 하셨다.

한국사회는 심각한 혼돈의 시대이다. 사회를 건전하게 계도할 많은 지도자가 부패와 부정으로 연루되어 도덕불감증이 더욱 팽배하고 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지도인들이 부재하다고 말한다. 특히 교단의 지도자가 한국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더욱 뼈아픈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대중교화의 걸림돌인 교화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질적교화, 양적교화의 논의보다는 교화의 원칙은 대중들을 우리 회상으로 많이 인도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는 공격적인 교회운동이 중요하다. 전 교역자(출가·재가)가 교화현안의 우선 순위인 입교, 출석의 200%을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뛰는 일만이 대량교화요, 양적교화의 비전이며, 2005년 인구조사의 대책이다.

교단 지도부부터 교회위주 사업을 전개하는 교화마인드는 물론,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지도인들로 나서야 부패한 사회를 교법으로 구현할 것이다. 혹 현재의 교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과제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법동지들의 용어리를 해소시켜 다함께 일원대도 회상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자. 신앙의 목적은 안심임명이듯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은혜’를 실천하는 교법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에서 대표적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여 기업과 상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듯이 원불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은혜의 종교’로 뿌리 깊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가·출가 모두는 변화의 주체여야 한다. 재가·출가의 의식개혁만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회운동이다. 교화의 주체는 출가·재가교도 모두의 몫이므로 따로이 주인이 없다. 교단 1세기와 3대 3회말인 원기108년도를 향한 교회운동만이 교운이 국운을 이끌어가고 오만년 대운을 펼쳐갈 정신운동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그리고 대산종사가 물려주신 유산(業)들을 계승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 실력을 갖춰 입교, 법회출석 배가운동과 잠자는 교도 일깨우기와 교폐 달기, 4축 2제의 문화적 활동을 전개하여 총력교화를 펼쳐나가자.

<첨부>

## 교단 교화 침체의 원인 - 원기 80년 10월 보고서\*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0년전 인구조사에서 9만명이 나왔을 때 교단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안주하다 오늘에 이르렀다. 10년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반성해 본다.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문제의 핵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일선교화 현실이 열악한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교역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재양성에 소극적이다. 언제나 위로부터 요구 조건은 많으면서 정작 일선 교역자나 교도의 요구 조건에는 무관심하였다.

지난 10년동안 각종 사업행사에 무리한 법위향상, 전무출신제도 및 각종규칙 규약 강화 등이 실질적으로 일선 교무와 교도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일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직 교단으로 향해 주기만 바라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정확한 문제의 파악과 함께 먼저 행동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제는 또 다시 문제점만 논의하고, 책임지지 않은 분위기에 식상해 하고 있다.

1. 지난 10년 동안 일관성 있는 교화정책이 없었다. 교단은 전 교역자의 공의로 마련된 3대 특위의 결의 사항을 무시하고 행정을 펼쳐왔다. 교단에서 공의로 결정된 내용이 그 외에도 영모원에서 교육부로 지원하는 것, 총부 철로변에 선전탑을 세우는 것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화 교육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2. 교단이 지금처럼 개인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전무출신 정신만 강조하여서는 구성원들에게 성취동기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젊은 교역자들이 가슴 울렁이며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 전체 교역자가 지금 기운이 가라앉아

---

\* 원기 80년 10월 보고서 중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연구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있다.

3. 교단의 행정부가 대전 또는 서울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 난국에서 새로 일어나려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지금 원불교는 이론만 앞세우고 실제로 종교 본질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4. 지금 바로 영산원불교대학과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하나로 합하는 일에 교단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현재의 영산대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영산선원에서 영산대학으로 승격하였듯이 이제는 영산대학원으로 승격하여 교역자 교육의 완성기관으로 발전시키자.
5. 사업위주의 교단 풍토가 일선 교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임자가 임지를 떠나면서 교단의 재정을 후임자에게 물려주면 전임자에게 아무런 사업성적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교단의 각종 사업회에 헌공하거나 급히 건축을 하는 등 사전에 활용하여서 본인의 공적을 삼는다. 이렇게 하여 인사이동 때마다 지방의 재정이 총부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당 짓고 자립하려고 애써 모은 돈을 전임자가 모두 써버릴 때, 교도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른다.
6.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화를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평가가 제대로 안되니까 임기만 채우다가 또 다른 교화지로 임명받게 된다. 그러니까 교화 자체에 대한 소명의식과 철저한 준비가 없이 교화를 나가게 된다.
7. 교화 교육 훈련이 관념에 떨어져 있다.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교화 교육 훈련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단은 일선 교역자와 교도의 문제를 풀어주는 교화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8. 청소년 교화는 타종교처럼 그 지역 선배 청소년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들과 가장 가깝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선배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용금을 지급하면서 교역자는 뒤에서 지도하면 계속적인 교화가 가능하고 교화인력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9.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아원 등의 운영이 교무가 직접 관여하고 남자교무가 기사로 채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운영을 교도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교무가 금전에 관여하면 주위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 이들을 통해 교당 재정에 도움

을 얻는 것 자체가 교법 정신에 어긋난다.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교무도 덕무나 재가교도에게 운영을 넘기고 교화인력으로 투입해야한다.

10. 지금까지 불교와 차별 정책을 하여온 것이 교화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불교 신도들이 원불교를 찾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원불교교도가 불교나 천주교로 가고 있다.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 바로 사이비 종교라고 보는 지역이 많다.(충청도, 강원도, 경남지역)

## 참고 문헌

- 원불교전서
- 원불교헌규집
- 교회성장학, 1986, 대한기독교출판사)
- 목회와 교회성장, 1996, 기독교문서선교출판부
- 현대사회와 기독교, 1982, 주류출판사
- 교회의 미래상, 1987, 분도출판사
- 해방 후 한국교회의 성장과 해외선교, 전호진 교수 논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4집
- 지식사회와 원불교, 1999, 원광대학출판국
- 원불교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류성태, 2002, 원불교 출판사